

명사구에 있어서 「の」의 유무에 따른 의미 변화

全成龍*

(e-mail : immanuel@cju.ac.kr)

目次

1. 들어가며
 2. 「A의B」를 「AB」의 형태로 할 수 없는 것
 3. 「A의B」를 「AB」형태로 할 수 있는 것
 - 3.1 「A의B」와 「AB」의 의미가 다른 경우
 - 3.2 「A의B」와 「AB」의 의미가 같은 경우
 4. 「A의B」라는 이 형태가 하나의 단어인 경우
 5. 마치며
-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일본어 교재를 보면 일반적으로 첫 도입 단계에서부터 한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조사 「の」에 대해 가르치며, 이 때 「の」가 한국어의 해석과는 상관없이 일본어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の」를 넣어야 하며, 명사와 명사 사이에 「の」를 넣지 않으면 일본어는 非文이 된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英語の本」 「数学のノート」 등의 예문을 들고 있다. 실지로 『스타트 일본어회화 입문』(제이플러스)의 p.40에서

「~の」는 ‘~의’에 해당하는 말이다. 우리말은 명사와 명사 사이에 ‘~의’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어에서는 반드시 「~の」가 들어간다.

* 청주대학교 부교수 일본어학

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예문과 해석을 하고 있다.

- ① それは日本のけいたい電話です。 그건 일본 휴대폰입니다.
日本けいたい (×)
- ② これは韓国の食べ物です。 이건 한국 음식입니다.
韓国食べ物 (×)
- ③ あれは中村さんのさいふです。 저건 나카무라씨 지갑입니다.
中村さんさいふ (×)

실제 다음의 예1은 『스타트 일본어회화 입문』(제이플러스)의 설명처럼, 한국어에 있어 「~의」가 필요 없으므로, 한국어 입장에서 보면 「~의」에 해당하는 조사「の」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일본어로서는 조사「の」를 명사와 명사 사이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1; 父と母が結婚したころハンメは現れた。男に捨てられたのだそうだ。しばらく「せまい、きたない」と文句をいいながらも家にいたが、ある日ふっといなくなった。母の鏡台の引き出しの中にあつた**ダイヤの指輪**やプラチナのネックレスとともに一。
(家族の標本)

다시 말해, 위 예1의 「ダイヤの指輪」를 「ダイヤ指輪」로 하면 일본어로서는 非文法的인 문장이 된다.

또 조사「の」에 대해,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조사「の」를 넣어야 하지만, 조사「の」를 넣지 않으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설명하면서, 많은 경우 「ソウルの大学」와 「ソウル大学」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실지로 『20문형으로 배우는 와이즈 일본어 문법1』(사람in)의 p.40~41에서도

- (4) ソウルの大学 서울에 있는 대학교
(5) ソウル大学 서울대학교

의 예문을 들며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의 「의」가 생략되는데 반해, 일본어의 「の」는 고유명사화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생략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한 단어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の」를 사용해야 한다. (4)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이고, (5)는 고유명사인 「서울대학교」를 의미한다.

「の」의 유무에 의해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것을 보면 일본어에서 「の」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설명이 틀렸다고 할 수 없고, 또 일본어를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도 않지만, 그렇다면 「アメリカの人」와 「アメリカ人」도 이러한 의미적 차이가 있는 것일까? 실지로 다음 예2, 예3과 같이 동일한 문맥 속에서 나타나는 「日本の漫画」와 「日本漫画」, 「下の息子ヤコブ」와 「下の息子のヤコブ」의 의미적 차이는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없는 것일까? 의미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이며, 만일 의미의 차이가 없다면 이것은 왜 없는 것일까?

예2; そして子供の心をつかんだのは紛れもなくあの有名な「ポケットモンスター」である。

日本の漫画が成功した理由は、優れたアニメーション技術、漫画を海外に進出させた人たちの努力も大きいですが、何よりも内容が日常的、現実的であり、思いがけない展開を見せることにある。(中略)

また、昔は日本のアニメや漫画は「やたら目が大きい。目の化け物みたいだ」といわれていたが、今ではその傾向さえ取り入れられている。そして伝統的なアメリカコミックスと違った人物のほっそりとした体型、丸顔に似た輪郭なども日本漫画の影響を受け入れるといえる。(現代日本事情と文化)

예3; 리베카는, 家にしまっておいた上の息子エサウの晴れ着を取り出して、下の息子ヤコブに着せ、子山羊の毛皮を彼の腕や滑らかな首に巻きつけて、自分が作ったおいしい料理とパンを息子ヤコブに渡した。(中略)

エサウは、父がヤコブを祝福したことを根に持って、ヤコブを憎むようになった。そして、心の中で言った。「父の喪の日も遠くない。そのときがきたら、必ず弟のヤコブを殺してやる。」ところが、上の息子エサウのこの言葉が母リベカの耳に入った。彼女は人をやって、下の息子のヤコブを呼び寄せて言った。「大変です。エサウ兄さんがお前を殺して恨みを晴らそうとしています。～」(創世記27:15~42)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명사+의+명사」라는 명사구에 있어 「の」의 유무에 따른 의미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편의상 「명사+의+명사」를 「AのB」로 나타내기로 한다.

그런데 일본어의 경우, 형태적으로 단순히 「AのB」라 할지라도, 여러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AのB」를 「AB」의 형태로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A의B」를 「AB」로 하면 非文이 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많은 일본어의 명사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예4; 「おそらくわが隊はこのあたりに居るのだと思います。ここを脱出するには駒込川の支流に沿って西に移動し、途中で方向を変えて馬立場に向うより方法はないと思います」
神田大尉が言った。神田大尉の地図にはきのう歩いていた経路が鉛筆で記されていた。(八甲田山死の彷徨)

예5; 「おれ、父親とお袋そろってどっかに行って遊んだり、旅行したって記憶がないんだ」
Tがいった。Tの父親は、母親にいわせれば、「あんなに冷たいひとはいない」のだそうだ。「もしあなたがいなければ、とっくに離婚してたんだけど」というのが母親の口癖だった。

「海ぐらい行ったろ? 夏休み」

「いや、とにかく、父親は家にいなかったんだ」Tは配られた弁当の鮭を箸でつつきながらいった。(家族の標本)

예6; 僕たち、寂しく無力なのだから、ほかになんにもできないのだから、せめて言葉だけでも、誠実こめてお贈りするのが、まことの、謙讓の美しい生き方である、と僕は今では信じています。常に、自身にできる限りの範囲で、それを成し遂げるように努力すべきだと思います。どんなに小さいことでもよい。タンポポの花一輪の贈り物でも、決して恥じずに差しだすのが、最も勇氣ある、男らしい態度であると信じます。

(葉桜と魔笛)

예7; 中野たちはズカズカと部屋に侵入し、二人を取り囲む。そこへ、長部が止めに入るが、長部も奈緒子の仲間として扱われてしまう。奈緒子、上田、長部、あわや磔か、と思ったところへ、清水が現れた。

「お待ち下さい。この人たちのやったことは確かに許せません。しかし、みなさんを人殺しにす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どうでしょう、この者たちの処分は私にらせ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吉子の片腕である清水の言葉には逆らえない。中野たちは、渋々引き上げていった。(トリック 2)

예8; 「ママがあなたにすごく会いたがってるの」

ダニエラが言う。鶯色(とびいろ)の瞳、ゆるくウェーブのかかったおなじ色の髪。

「勿論パパも弟もよ。最近ちっとも顔をみせてくれないうですもの」

「ごめんなさい。アンジェラのことではたばたしてたから」

私は言い、小さな**カップ**のコーヒーを啜(すす)る。(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그런데 다음 예는 「AのB」를 「AB」로 하면 非文이 된다는 점에서는 위의 예4~8과 동일하지만, 「AのB」를 「BのA」와 같이 A와 B의 위치를 바꾸어도, 문맥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에 그다지 커다란 변화가 생기지 않고 문법적으로도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예4~8의 경우는 문맥 속에서 「AのB」를 「BのA」로 바꾸어 넣으면 非文이 된다.) 앞의 예와 약간 다르다.

예9; 徳島隊を案内した熊の沢の**案内人の七人**は、徳島大尉に絶対言うなと口止めされたまま、長い間、沈黙を守っていたが、昭和五年になって苦米地吉氏によって初めて事実が明らかにされた。(八甲田山死の彷徨)

예10; 自動改札口に切符を入れようとしたとき朝から何も食べていないことを思い出し、踵(きびす)を返して駅ビルのエレベーターに乗った。夕食時だったので**七階のレストラン街**は混んでいた。比較的**空(す)**いている中華料理店に入った。(家族の標本)

예11; テーブルの上の、一杯のそばを囲んだ母子三人の会話が、カウンターの中と外の二人に聞こえる。

「……おいしいね……」

「今年も北海亭(ほっかいてい)のおそば食べれたね」

「来年も食べれるといいね……」

食べ終えて、百五十円を支払い、出て行く**三人の後ろ姿**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どうかよいお年を!」

その日、何十回とくり返した言葉で送り出した。(一杯のかけそば)

예12; 「**ガラスの器**」がレンズの役目を果たしていたんだ。入ってきた光は、この器を通して、落ち武者の絵に当たる。毎年、一月十一日になると、ちょうど光がこの角度になるんだ。光の熱で赤い蠟(ろう)が溶けたんだ」(トリック2)

예13; 「じゃあな」夏目は去って行った。

アキは、**夏目の後ろ姿**をじっと見つめた。今にも追いかけて行きたい気持ちを必死にこらえて、ベンチに座っていた。(最後の恋)

이와 같은 예로서는 위의 예문 이외에도 「ビール**の**六個入り」 「五人**の**案内人」 「ウェ이터**の**一人一人」 「ダイヤ**の**7(카드)」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A 혹은 B에 조수사가 많이 온다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3. 「AのB」를 「AB」 형태로 할 수 있는 것

「AのB」를 「AB」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3.1 「AのB」와 「AB」의 의미가 다른 경우

이것은 앞의 『20문형으로 배우는 와이즈 일본어 문법1』(사람in)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AのB」와 「AB」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예14; カエルの庭に木蓮の咲く季節ですね。

春、母からの手紙にはきまってそう書かれている。

東京の大学で四年間をすごし、戻るつもりではなかったこの街に戻った日、三月だというのに大雪で、翌朝雪に閉ざされたこの庭を眺めたとき、私ははじめてすこしだけ泣くことができたのだった。(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예15; 「もし、その女の人がインチキしたんだとしたら、これは大変な犯罪だ。君だって許せないだろう。調べてみる価値があると思わないか。金の玉事件。さあ、ごいっしょに金の玉……」罪を誤魔化したい気持ちでいっばいの奈緒子は、上田の挑発に乗ってしまった。(トリック 2)

예16; 芽実はそのままで一気に喋ると、涙を目に溜(た)めて黙ってしまった。ぼくは視線を逸らした。

「もう昔の話だ。ぼくが学生時代に付き合っていた人だ」

「二人の間に子供がいたの?」

「ああ、ほんの一瞬だけど、いた。でももういない。流産だった」

(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예17; 杉矢はそう言い、落してしまったブルーの小さな花をラッピングしてもらった。

「気を遣っていただいてすみませんでした。どうぞ」女の子は杉矢に花束を渡す。

杉矢は受け取った花束を、そのまま彼女に返した。女の子は大きな目をさらに大きく開いて呆気(あっけ)に取られていたが、杉矢は強引に花束を押しつけた。

(君といた夏)

예18; 「さびしいね。…… やっぱり誰か 学生さんを二階に置こうかしら……。女ばかりでは、まさかの時に不用心だからねえ……」

十日ばかり二人きりで暮らしたころ、美保子は晩の食事の時に、ふとそう言いだした。女手一つで、娘たちを育て上げ、苦労は多かったはずだが、暮らし方が上手なのか、四十四という年には、身体の動きがしなやかで、若々しかった。顔立ちも整っており、目の光につやがあった。(若い娘)

이외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서는 「鳥肌」 「赤字」 「兄上」 「兄弟子」 「弟弟子」 「男腹」 등이 있다.

3.2 「AのB」와 「AB」의 의미가 같은 경우

이것은 「AのB」의 의미와 「AB」의 의미가 같은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예19; 「杉矢、見て！ 流れ星だよ。きれーい！」

実家への電話を終えた杉矢が縁側に戻ってくると、朝美が声を上げた。杉矢は星空ではなくて、思わず朝美のくったくのない表情を見つめた。月の光に照らし出された朝美の横顔はほとんど化粧をしていなくても十分に綺麗だ。杉矢は思わず朝美に見とれてしまう。(君といた夏)

예20; 御殿の前にいた大勢の鬼は、杜子春の姿を見るや否や、すぐにそのまわりを取り捲いて、階(きざはし)の前へ引き据えました。階の上には一人の王様が、まっ黒な袍(きもの)に金の冠をかぶって、いかめしくあたりを睨んでいます。(杜子春)

예21; その時、鉄柵があいて眼鏡をかけた、三十ばかりの、校長、ウイリアム氏が微笑をうかべてあらわれた。もう立ち話をしている時ではなかった。(アメリカン・スクール)

예22; 途中、何度か平らな場所にでた。アメリカ人らしい、中年のカップルとすれちがった。私はすでに汗ばみ、前へ前へと進むしかない石の通路を、なにか自分の通りぬけてきた時間のように感じていた。(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예23; 数時間後、上田と矢部は現場に現れた。石原もついて来ている。彼らは、数珠やらお札やらを身体にたくさん身につけている。よほど、昨日のあやしい靈的タクシー体験がこたえたらしい。石原も昨晚、深見のもとを訪ねた折り、深見の家の周りに奇怪映画のような足長蜘蛛や日本人形を見てしまい、すっかり気が小さくなってた。(トリック2)

이와 같은 예로서는 위의 예문 이외에도 「夜の空」 「ビニールのふくろ」 「段ボールの箱」 「男部屋」 「前夫」 「国旗」 「木陰」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을 볼 때, 예14~18은 「AのB」와 「AB」의 의미가 서로 다르며, 예19~23은 「AのB」와 「AB」의 의미가 별 반 차이가 없음을, 아니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도대체 이 두 종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러한 차이는 물어둔 채,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ソウルの大学」와 「ソウル大学」의 예를 들며, 「の」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언급하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종류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그리 쉽게 될 일이 아니기에, 부분적인 설명이 범람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덮어둘 문제가 아니며,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밝혀져야 될 일이기에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4. 「A의B」라는 이 형태가 하나의 단어인 경우

이것은, 「A의B」라는 형태가 두개의 단어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A의B」라는 이 형태가 하나의 단어인 경우이다. 그런데 「A의B」라는 이 형태가 하나의 단어인지, A와 B라는 2개의 단어가 결합된 형태인지는 A와 B 앞에 수식어를 넣어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판별할 수 있다.¹⁾

예24; 暗闇の中、赤、水色、黄色、金、銀、色とりどりの折り鶴がくるくと空中を舞って、天の川を映す川面(かわも)に舞い降り流れていくさまは、現実のできごととは思えないほど美しかった。三人はそれぞれの思いを抱えながら、その光景を見下ろしていた。(君といた夏)

예25; —— やわらかい髪だ。

マーヴは私の背中を抱きながら、髪に鼻をうずめて言った。

—— 僕はきみの髪の色が大好きだ。やわらかくて、とても美しい。

(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예26; 「何これ？」ホームに転がったそれを幸子が拾い上げる。「指輪だ……」

夏目が買ってくれた指輪だ。何も言わずにただ黙っているアキに、幸子は、

「つぶれちゃってるけど、今じゃないよね？」と手渡す。

アキは受け取った指輪をてのひらにのせ、じっと見つめた。(最後の恋)

예27; 「あ、憬子さん、ここ、汚れてます」入江が自分の頬を指して教えると、憬子は手の甲でござとこすった。それでも落ちないので、入江はハンカチを出して拭(ふ)いてやる。入江の手は緊張で震えていた。(君といた夏)

1) 음성학적으로 악센트의 형태로 「A의B」라는 형태를 하나의 단어인지 두개의 단어인지 판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음성학적인 판단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수식어를 넣어 구분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즉, 「竹の子」와 같은 경우는 大きな竹の子는 가능해도 竹の大きな子は 불가능하기에 「竹の子」는 하나의 단어이며, 「女の子」와 같은 경우는 大きな女の子도 女の大きな子도 가능하기에 「女の子」는 2개의 단어가 결합된 경우인 것이다. 오현정씨는 『일본어의 연체수식에 관한 연구』(p.64)에서 수식명사와 주명사 사이에 수식어가 들어갈 수 없는 명사구를 설명하면서 「女の子」「男の子」도 예로 들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분석이며, 「女の子」「男の子」는 3.1 「A의B」와 「AB」의 의미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예28: 「前借り?」

アキは仕事を始める約束をすると、すぐに麗子に借金を申し込んだ。弟が病気で、その入院費が必要なのだというアキの身の上話を、麗子は本気にしていないようだ。(最後の恋)

이와 같은 예로서는 위의 예문 이외에도 「竹の子」「山の手」「絵の具」「茶の湯」「花の都」「水の泡」「面の皮」「身の回り」 등이 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논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일본어 교육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칠 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사 「の」에 대해 가르치며,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 교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사 「の」의 설명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백 퍼센트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다. 하나의 예로, [「~の」는 ‘~의’에 해당하는 말이다. 우리말은 명사와 명사 사이에 ‘~의’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어에서는 반드시 「~の」가 들어간다.] 라는 『스타트 일본어회화 입문』(제이플러스)의 설명이나, 조사 「の」에 대해,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조사 「の」를 넣어야 하지만, 명사와 명사 사이에 조사 「の」를 넣지 않으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는(예; ソウルの大学와 ソウル大学) 『20문형으로 배우는 와이즈 일본어 문법1』(사람in)의 설명이 그렇다.

앞에서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명사+의+명사」에 있어서 「の」의 유무에 따른 의미가 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을 편의상 「A의B」로 나타낸다고 할 때, 「神田大尉の地図」처럼 A와 B 사이에 반드시 「の」를 집어넣어 「A의B」라는 형태로 해야 하는 경우(AB의 형태는 非文이 됨)도 있고, 「月の光」처럼 「A의B」의 형태가 되었던 「AB」의 형태가 되었던 의미가 변하지 않고 거의 동일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채 부분적인 사실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언급하는 것은 일본어 교육에 있어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 「竹の子」처럼 「A의B」라는 형태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인 것도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거해 각 경우의 명사의 특징을 밝혀야 하지만, 이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여 여기서 「명사+의+명사」에 있어서 「の」의 유무에 따른 의미의 변화에 대해 언급해 보았지만, 「A의

B」를 「B의A」로 바꾸어 넣어도 커다란 의미의 변화가 없는 경우 외에는 구체적으로 A와 B의 특징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함께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기에, 이 들 명사구에 있어 각각의 특징을 밝히는 것은 금후의 연구과제로 남기지만, 한편으로 후학의 누군가의 의해 이 들의 특징이 밝혀졌으면 한다.

【인용 및 참고문헌】

- 鈴木重幸(1972) 『日本語文法・形態論』,むぎ書房
鈴木康之(1994) 『現代日本語の名詞的な連語の研究』,日本語文法研究会
오현정(2005) 『일본어의 연체수식에 관한 연구』,제이앤씨. p.64
이미숙·김옥임·남득현 공저(2007) 『20문형으로 배우는 와이즈 일본어 문법1』, 사람in. p.40~41
제이플러스기획편집부(2004) 『스타트 일본어회화 입문』, 제이플러스. p.40
(미즈노순페이 감수)

【出典一覽】

- 芥川竜之介 「杜子春」(『蜘蛛の糸・杜子春』所収・新潮文庫)
石坂洋次郎 「若い娘」(『女同士』所収・角川文庫)
江國香織 『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角川文庫)
北川悦吏子 『君といた夏』 (角川文庫)
北川悦吏子 『最後の恋』 (角川文庫)
小島信夫 「アメリカン・スクール」(小田切進編 『日本の短編小説 昭和(下)』所収・新潮文庫)
栗 良平 「一杯のかけそば」(『栗 良平作品集2』所収)
太宰 治 「葉桜と魔笛」(『新樹の言葉』所収・新潮文庫)
辻 仁成 『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角川文庫)
新田次郎 『八甲田山死の彷徨』(新潮文庫)
蒔田光治・太田 愛・福田卓郎 『トリック2』(角川文庫)
柳美里 『家族の標本』(朝日文芸文庫)
申景浩 『現代日本事情と文化』(일본어뱅크)
日本聖書協會 「創世記」(『旧約聖書』所収・新共同訳)

要 旨

この論文は、「名詞+の+名詞」という名詞句において、助詞「の」の有無によって表わされるその意味の変化を、日本の作品の中に実際に使われている例に基づいて調べたものである。「名詞+の+名詞」という形を仮に「A+の+B」とすれば、「A+の+B」は、現代日本語において、「AB」という形にできないものや、「AB」という形にできても「AB」の表す意味合いが「A+の+B」の意味合いと同じであるもの、「A+の+B」の意味合いとは異なるものなど様々である。さらに、「A+の+B」という形が二つの単語の組み合わせではなく、一つの単語である場合もある。ところで、「A+の+B」という形が「AB」の形になる場合、どんな場合に「A+の+B」と「AB」の意味合いが同じであり、どんな場合に「A+の+B」と「AB」の意味合いが異なるかについて、その特徴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が、このことは今後の研究にまわし、今は様々な現象を指摘するに止まりたい。

キーワード：「名詞+の+名詞」という名詞句、助詞「の」の有無・助数詞・
修飾語の位置による語の分別

투 고 : 2009. 8. 31
1차 심사 : 2009. 9. 12
2차 심사 : 2009. 9. 26